

## 獨逸 大學 도서관의 기능과 특성

鄭 暎 根

(祥明女大 講師, 敎育學)

## 1. 들어가는 글

학문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전수하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도서관이 지니는 의미와 기능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독일의 대학 안에 있는 도서관 역시 대학도서관의 이상과 기능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의 대학도서관과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을 것이다. 독일의 어느 대학에서나 도서관은 대체로 도시의 한 부분에 흩어져 있는 대학 시설물들의 중심이 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재학생이 수만 명에 이르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도서관을 드나들며 수업과 과제물 작성 그리고 졸업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 세계 어느 곳의 대학에서나 똑같은 풍경일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모든 대학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 아래 있는 국립대학으로서 대학도서관이 地域社會에 開放되어 있다는 점과, 각 학과 단위의 도서관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대학의 學術的 연구와 전수기능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 등은 한국의 경우와 아주 상

이하다. 더구나 독일의 대학도서관의 제도나 기능이 외형상으로는 한국과 서로 유사한 것 같아도 막상 그 제도의 특수성이나 시설, 운영 방식 등에 내재된 차이점은 대학도서관의 역할마저도 우리의 대학에서와는 다르게 인지하게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한국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여러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대학도서관의 제도, 시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인의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가장 빈번히 이용하게 되는 각 學科 단위의 도서관 역시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각 주정부 교육담당부서의 관할 아래 있는 대학들이 도서관의 운영에서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일반적인 서술을 어렵게 한다. 여기에서는 독일에서 인구분포상 가장 큰 주이면서 동시에 대학이 제일 많이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쾰른대학교(Universität zu Köln)를 중심으로 하여 독일의 대학도서관을 소개하고자 한다.<sup>1)</sup>

1) 쾰른대학교에는 철학부, 수학 및 자연과학부, 商學 및 사회과학부, 법학부, 의학부, 교육대학, 그리고 특수교육대학 등의 단과대학이 있다. 공과대학은 독일의 전통적인 종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獨逸의 대학도서관

### 1) 制度

모두가 국립인 독일의 대학은 대학에 딸린 도서관을 그 대학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 속한 도시의 모든 市民에게 開放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도서관의 공식 명칭이 '대학 및 시도서관'인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을 동시에 시립 도서관으로도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도시는 별도로 시립 도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 도서관은 시민들의 교양이나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적, 음반, 어학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또 그 도시의 郷土史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료와 전시관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립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순수 학술서적이거나 자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려는 시민들은 자연히 대학의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다. 자신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든지 도서관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는데, 이 도서관 이용자카드는 그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도서대출의 경우가 아니고 단지 참고열람실 등 도서관을 출입하는 데에는 이용자카드마저 필요하지 않다.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학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서관 이용자카드를 발급받는다.

도서관 업무에 밝은 專門人이 대학의 중앙도서관장직을 맡는다. 그는 중앙도서관의 모든 부서가 재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도서관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진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영역에 따라 나누어진 여러 부서들은 아마도 세계의 모든 대학 도서관에서 엇비슷할 것이다. 다만 독일의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서의 '전문영역 담당자' (Fachreferenten) 제도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한 대학 안에서 다양한 영역의 학문분야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만을 겸비한 사람들로써는 각 분야의 도서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구입하

며,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해당분야에 능통한 專門領域 담당자를 두어 그들이 각 분야의 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쾰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경제학 및 사회과학분야 담당자 네 사람을 비롯하여 법학, 문학 및 언어학 일반, 영어학 및 영문학, 독일어학 및 문학 담당자 등 전문영역 담당자가 모두 16명이다.

중앙도서관 이외에도 대학의 특성상 몇몇 단과대학 수준의 도서관이나 또는 한 계통이지만 세분화된 몇몇 전공분야가 독립된 도서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단과대학 수준의 도서관으로는 예전에는 독자적인 고등교육기관이었으나, 최근에 종합대학교의 한 단과대학으로 편입된 교육대학이나 특수교육대학이 종전의 도서관을 단과대학 자체의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같은 계통이지만 세분화된 학과들이 공동으로 대학의 산하기구 형식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무기화학과, 유기화학과, 물리화학과의 합동도서관을 들 수 있다. 단과대학의 도서관으로 대표적인 것은 의과대학의 의학도서관이다. 대학 내의 이러한 도서관들은 중앙도서관과 상호협조하며 운영되지만, 대체로 그 운영 방식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관의 이용방법이나 이용시간 등은 중앙도서관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대개의 대학은 위에 설명한 도서관 이외에도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생식당, 학생회관 또는 대학도서관 내의 휴식공간 등에 세계 각국의 신문과 시사잡지를 비치하여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의 정기간행물 열람실을 들르지 않고도 손쉽게 원하는 바를 해결하도록 봉사한다. 어떤 대학의 도서관에서는 학생회관에 시사잡지나 소설, 수필집 등 가벼운 읽을거리를 대여해주는 도서대출 코너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 대학 안에 공존하는 다양한 도서관들은 대학의 의결기구인 대학 운영위원회의 도서관 분과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반영한다. 쾰른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도서관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한 대학의 도서관은 그 대학이 속한 주의 다른 대학도서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된다. 주정부는 대학들이 제한

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 관할의 대학도서관들을 총괄하여 계획하고 도서관 운영에 조언하는 정부 산하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부서에는 그 주에 속한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전부 포괄하는 종합도서목록이 비치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의 대학도서관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는 단연 學科別로 도서관을 설치하는 제도일 것이다. 학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의 중앙도서관과는 관계가 없다. '학과 도서관'(Seminarbibliothek)은 중앙도서관의 지시나 감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학과 소속의 시설이다. 그 규모나 시설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학과도서관은 대학생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의 학과 도서관을 중앙도서관과는 별도로 설명할 것이다.

## 2) 施 設

대학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의 규모는 각 대학별로 상이하다. 옛 건물을 사용하는 대학의 경우, 도서관의 규모나 내부시설이 신축건물에 비해서 협소하고 불충분할 수 있다. 신축된 도서관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서 간이식당, 서점, 복사 및 제본소 등에 이르는 각종 편의시설들이 건물 안에 들어 있다. 따라서 각종 열람실이나 서고의 규모와 이용방법은 물론 냉·난방 및 환기시설에도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핵심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대학 중앙도서관의 시설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의 주된 기능이 자료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 만큼 자료와 정보처리를 위한 시설을 들 수 있다. 이용자가 필요한 책이나 논문을 찾는 일에서 대출 및 반납, 대출기간 연장이나 이미 대출된 책을 미리 대기신청하는 일은 물론 도서관 이용내역을 점검하기 위한 電算施設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도서관 곳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도서관의 중앙서고를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해서 원하는 자료를

직접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한다. 資料銀行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제일 큰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은 참고열람실이다. 각 분야별로 독립된 참고열람실에는 해당분야의 기본 서적과 사전류는 물론 학술잡지 등이 비치되어 있다. 학술잡지의 경우, 그 종류나 분량이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참고열람실의 제한된 공간에 모두 비치하기가 어려워서 이용빈도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열람실 서가에 꽂아놓고 나머지는 서고에 보관한다. 참고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쾌적한 독서공간이 서가의 주변에 넓게 마련되어 있다. 참고열람실 한 구석에는 필요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도록 동전투입식 자동복사기를 설치해 놓는다.

음향이나 영상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열람실이 따로 있으며, 다루는 데에 주의를 요하는 古書나 古文간를 사진으로 복사해 주는 부서가 있다. 낡거나 파손된 도서들을 수선하는 부서와 자체 인쇄소도 있다. 참고열람실을 비롯한 도서관의 내부를 출입할 때에 가방이나 의자를 지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의복과 가방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으며, 개인들이 자기 자물쇠를 채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물함이 도서관 일층에 준비되어 있다. 석·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분량의 참고문헌과 소지품을 매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도서 및 필기용구 보관용 개인 사물함이 열람실 안에 제공된다. 그리고 도서관 주변에는 잔디와 숲, 작은 호수 등 건물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가 흔히 일반열람실이라고 부르는, 다시 말해 서적이 비치되지 않은 채 오로지 독서와 자율학습만을 하도록 제공되는 공간이 도서관에는 없다. 이는 아마도 도서관의 기능이 학술자료의 수집, 보관, 대여에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열람실이나 정기간행물실에 마련된 독서공간을 제외하고는 조만간에 있을 졸업을 위한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용신청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개인용 학습공간

이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한 평 정도 크기의 이 공간은 학위논문 작성의 막바지에 있거나 졸업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집과 학교를 오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곳이다.

대부분의 대학 중앙도서관에는 각종 전시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공간적 여유가 충분한 도서관은 별도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서관 1층의 복도나 휴식 공간의 한 부분을 展示空間으로 사용한다. 이곳에서 전시되는 내용은 대체로 책이나 도서관과 관련된 것이나, 때로는 예술작품 또는 역사적인 내용도 전시된다. 수시로 새롭게 단장되는 도서관의 전시공간은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휴식 하면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전시 내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하루에 두세 번씩 전시내용을 안내하는 계획에 맞추어 휴식 시간을 조정하면 된다.

### 3) 運 營

대학 중앙도서관의 세부적인 제도나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점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중요한 내용이다.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과 관련 지어 주로 관심을 갖는 사항으로는 도서관 이용 시간, 도서의 대출과 반납에 관한 일, 도서관의 이용자를 위한 홍보와 안내활동일 것이다.

#### ① 도서관 이용시간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예전에 비해 도서관 이용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그 까닭은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한 관리인원의 감축에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자정까지 책을 읽다가 왔다는 말을 이제는 들을 수 없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앙도서관이 문을 여는 시간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그리고 문을 닫는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보통이다. 그러나 이 시간은 참고열람실의 개방시간이다. 도서관의 각 부서가 창구업무를 하는 시간은 대체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정해진다. 어떤 창구업무는 하루중 정해진 몇 시간 동안만 보기도 한다. 가장 일상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도서의 대출과 반납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한데, 이때에도 담당직원의 점심식사를 위해 중간에 한

시간은 휴무이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계와 반납 창구는 일주일에 두번씩은 오후 6시나 7시까지 연장근무를 한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는 각 부서의 업무시간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 ② 도서의 대출 및 반납

일반적으로 도서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도서목록함의 카드를 찾아 대출신청서에 기입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곳곳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직접 신청한다. 이 경우 대출을 신청한 책이 창구에 나올 때까지는 몇 시간이 걸린다. 개가식 중앙서고를 가진 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필요한 책을 서고에서 직접 들고나와 대출계에 신용카드 모양의 이용자카드를 책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대출계의 창구업무가 끝난 시각 이후에는 단말기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신청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찾으러 가면 된다. 도서를 대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4주이며 두 번 더 연장해서 12주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찾고 있는 책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대출되었을 경우에는 대기신청을 하는데, 단말기를 통해 자신이 대기자 명단의 몇 번째에 위치하는가를 확인하고 명단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입력시키면 된다. 대출되었던 책이 반납되어 사용할 차례가 돌아오면 도서관은 엽서를 통해 대출이 가능함을 알려준다. 빌린 책을 반납하면 반납을 확인하는 쪽지가 인쇄되어 나온다. 이유 없이 도서반납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따라 벌금이 누진되며, 이용자가 여러 차례 도서관 이용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도서관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도서대출과 관련된 특징 중 하나는 '遠距離 대출' (Fernleihe)이다. 학위논문 작성과 같은 학술적 작업에서는 자료수집에 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원거리 대출은 이용자가 자신의 대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를 필요로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도서관 이용자는 원거리 대출을 담당하는 부서의 창구에 가서 저자와 책명 또는 논문제목과 게재된 학술잡지명을 기입하여 대출신청을 한다. 그러면 도서관은 찾고 있는 문헌이 독일내 어느 곳에 있는가를 확

인한 뒤, 그 곳에 협조를 요청해서 책은 원본 그대로 그리고 논문은 복사하여 받아다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자료은행 같은 電算網 확충은 이 제도를 전보다 더 손쉽게 운영하게 한다. 원거리 대출은 주변의 외국까지도 가능하며 보편화 되지 않은 희귀성 자료들을 이용하는 데에 유용하다. 원거리 대출신청시 이용자는 열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같은 주에 속한 대학들 간에도 일상적인 원거리 대출이 이루어진다. 도서관입 예산의 절감과 서고 부족난을 줄이기 위해 각 대학은 자기 특정한 분야의 세계적인 정기간행물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다른 대학들과 서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각 분야의 필수적인 학술잡지는 모든 대학에 구비되어 있다. 자주 쓰이지 않는 자료를 서로 근거리에서 있는 여러 대학들이 중복하여 구입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제도이다. 이러한 종류의 원거리 대출은 앞에 설명한 원거리 대출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도서관대출과 연관된 또 다른 특징을 든다면, 學習教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많이 쓰이는 책들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한 곳에 모아 놓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대학도서관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책값이 비싸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책이 수십 권씩 진열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교재대출제에는 특히 학기초에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 이곳은 개가식이라서 누구든지 필요한 책을 꺼내 오면 된다. 반납도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용하기가 아주 편하다.

### ③ 도서관의 홍보와 안내

날로 다양해지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용자에게 홍보활동을 통해 알려주고 새로운 제도와 시설을 안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의 홍보와 안내에 많은 노력을 한다. 도서관 여러 곳에 도서관 이용 전반에 관한 안내책자는 물론 부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안내전단들이 비치되어 있어서 도서관을 처음 찾는 사람이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물론 안내를 전담하는 창구가 있고 또 안내전담 인력도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도서관 자체에서

인쇄한 다양한 안내책자와 전단은 도서관 이용에 큰 도움을 준다.

매학기 초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案内行事を 벌인다. 하루에 대여섯 차례씩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 전체를 돌아보면서 각 부서와 시설의 위치에서부터 도서관 이용상의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서관의 전산화와 더불어 이러한 안내행사는 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학기초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인원(예를 들어 15명)이 모여서 도서관 이용을 위한 안내를 받고자 할 경우, 도서관은 기꺼이 안내에 나선다. 전산화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학생들의 욕구가 도서관측의 안내제도와 부합되고 있어 대학도서관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일은 도서관 일상업무의 일환이 되었다.

홍보나 안내 외에도 도서관에서는 文化行事나 특정한 내용의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이에 관심 있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봉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사가 도서관 내의 공간에 전시된 내용과 연결된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수많은 장서는 물론이거니와 전산화된 시설을 갖추고 친절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봉사하고 있다.

## 3. 學科 도서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 같이 독일의 대학도서관에 대해 설명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각 학과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학과 도서관이다. 사실 학과 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빈도에서 중앙도서관을 월등히 능가한다.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학과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문적 특성상 또는 대학의 건물 공간 이용계획에 의해 몇 개 학과가 공동으로 도서관을 설치할 수도 있다. 학과마다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저 외형상으로 약간의 도서와 독서공간을 확보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과 도서관에는 도서관 업무를 정식으로 교육받은 사서가 항상 근무하고 있으며, 그 학과의 학술적

연구에 필요한 교재와 전문서적이 중앙도서관에 비해 조금도 손색없이 비치되어 있다. 오히려 그 분야에 관해서는 중앙도서관보다 더 전문적이다. 어느 학과에 특정한 연구소가 부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학과 도서관과는 별개의 도서관과 문서고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다.

### 1) 학과 도서관의 機能

중앙도서관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자료들을 총괄하여 제공하는 반면에, 학과 도서관은 그 학과의 특성과 관련된 전문서적들을 갖추어 놓고 있다.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에는 책의 대출과 반납 등을 위해 잠시 들르는 반면에 학과 도서관에는 자신이 현재 필요로 하는 책과 논문을 찾으러 올 뿐만 아니라, 과제물이나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필요할 수도 있을 자료들을 둘러보면서 수집하러 온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중심의 수업이 특정한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과 연관지어 미리 주어진 논제들에 대한 준비를 위해 관련 서적들을 스스로 찾아서 읽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기초에 제시된 참고문헌뿐만 아니라 폭 넓은 문헌조사를 학과 도서관에서 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두 분야의 부전공을 의무적으로 택해야 하는 독일의 대학생들은 도합 세 분야의 초급 및 고급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학과 도서관들을 자주 드나들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학과 도서관에는 그 분야의 책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司書가 근무하고 있어서 학생과 교수가 자료와 문헌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서적과 학술잡지는 학과 도서관에 더 훌륭히 확보되어 있다. 주말에는 학생들에게 도서대출도 해줌으로써 참고 도서를 열람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반도서관의 역할을 거의 그대로 한다. 해당학과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와 세미나에 필요한 주요 도서를 매학기마다 학과 도서관 한 곳에 따로 비치해 놓아 학생들이 참고하도록 한다. 도서구입 예산을 책정받은 교수들은 그 예산으로 구입한 책들을 학과 도서관에 제공하며, 그렇지 못한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책을 학과 도서관을 통해 구

입하여 사용한다. 학과 교수들의 연구활동 지원 역시 학과 도서관이 하는 역할 중의 하나이다.

이밖에도 학과 도서관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위해 강의실을 오가며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수시로 들러서 학술잡지를 들추어 보거나 장서들을 둘러보면서 전공분야의 책과 친숙하게 접하는 생활에 익숙하게 한다. 교수에 따라서는 자신의 강의록이나 세미나 연구물을 이 곳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참고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논문이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도 바로 학과 도서관이다. 한마디로 말해 학과 도서관은 어느 한 분야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學術的 作業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장소이며, 또 해당학과 교수들이 수업과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협조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과활동의 中心地라고 할 수 있다.

### 2) 位置와 施設

학과 도서관은 대체로 그 학과의 교수연구실과 세미나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다. 이 도서관은 학과의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학과의 영역 아래 있다.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로 가면서 잠시 들러 필요한 용건을 해결할 수 있고, 학생들이 수업 도중에 제시된 참고문헌을 찾거나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해 수업 후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곳이 학과 도서관이다. 한국의 대학과는 달리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나 같은 전공을 하는 동료학생들 사이의 연대감이 느슨한. 독일의 대학에서 학과 도서관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核心的 役割을 한다. 따라서 독일의 대학생활은 철두철미하게 학술적일 수밖에 없다. 학점이수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업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강의와 학술적으로 엄격히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독일의 대학이 전공과 두 종류의 부전공이라는 폭이 넓으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는 아마도 학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學問探究의 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과 도서관의 규모와 시설은 학과별로 다르

다. 학생수가 보통 수천 명씩 되는 독어독문학이나 법학 등의 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도서관을 운영한다. 대개의 경우 학과 도서관에는 사서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고, 이용자의 안내와 도서의 유출이나 도난방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한 구석에는 도서목록 카드함과 복사기 등이 비치되어 있는 출입 및 편의공간, 그리고 개가식 서고인 동시에 열람실로 쓰이는 큰 공간이 있다. 장서는 학과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수만 권에서 이십만 권에까지 이른다. 아직은 대부분 도서목록 카드를 이용하지만 目錄의 電算化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중앙도서관과 연결하여 도서의 대출이나 정보교환은 물론 자료은행을 통한 문헌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학과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학과 도서관 출입구 부근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다. 학과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게시판 역시 대개는 도서관 출입구 근처에 설치된다.

### 3) 運 營

학과에 소속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운영은 학과의 관할사항이다. 학과장 업무는 학과의 '정교수'(Ordinarius)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데, 학과 도서관의 책임자는 바로 학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책임관계일 뿐 도서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은 사서이다.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사서가 있고 그에 따라서는 관리직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서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적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열 명 이상의 조교가 그들에게 할당된 주당 근무시간만큼 사서를 도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학과 도서관의 전산화를 위해 주정부는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을 보내주기도 한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학과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사서와 조교의 인건비는 대학의 인력예산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개인별로 직접 지급한다. 도서관 운영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도서구입을 위한 금액이다. 쾰

른대학교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학과 도서관의 경우, 1990년 도서구입비용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여 약 2,500만 원 정도였다.

학과 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장서와 도서목록을 대조하면서 소장된 도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주말에는 도서를 대출하여 그 다음 주초에 반납받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이 주말 대출제도를 이용한다. 학생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學生 意見이 도서관 운영에 반영된다. 전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학과 도서관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새로 구입한 도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내외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 주기도 한다.

## 4. 맺는 글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대학이 학문의 연구와 전수라는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내의 시설이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은 소장된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대학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문화행사 역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우리가 대학을 논하면서 흔히 강조하는 대학의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은 스스로를 홍보하고 또 이용자를 안내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대학도서관이 학생과 시민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文化空間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수많은 장서와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며 또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원거리 대출제도를 비롯한 몇 가지 사항은 도서관 상호간의 協力體制 구축과 자료의 交換利用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이용자의 편의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학도서관 역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대학

도서관은 학술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생들 역시 도서관을 독서실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학문연구와 학문전수의 풍토에서 기인한 도서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도서관의 홍보 및 안내에도 미비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대학에는 생소한 독일 대학의 학과별 도서관제도는 어쩌면 대학의 체제나 운영 등이 다른 데에서 나온 독일적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문의 연구와 전수에서 독일의 대학이 뛰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학과 도서관의 핵심적인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 제정난에 허덕이는 한국의 대학에서 학과 도서관 같은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겠으나, 학문의

발전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 고려해볼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대학도서관 역시 가속되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여 기능확충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데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의 중앙도서관에 들어서는 새로운 시설과 장비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학과 도서관의 전산화작업 또한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날로 늘어나는 장서를 보관해야 할 서고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상과는 달리 대학의 입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이 모자란다는 불평이 나온 지도 오래되었다.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적 분산 등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